

## 제240호 (2010. 1. 4)

---

### ■ 건설 경기

- 2009년 국내건설 수주, 공공 호조민간 부진...양극화 심화
- 2009년 부동산 경기, 경기활성화대책 영향으로 연착륙

### ■ 정책·경영

- UAE 원전 건설·운영 사업 수주
- 2010년 경제정책-상반기까지 경기확장정책 기조 유지
- 2010년 건설생산체계 및 압박철폐도 대폭 변화

###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庚寅年, 국가와 국민의 건설산업으로

## 2009년 국내건설 수주, 공공 호조민간 부진...양극화 심화

- 공공 수주는 예산 조기 집행으로 호조세, 민간 수주는 하반기 들어 감소폭 둔화
- 2009년 국내 건설수주는 1~10월 간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공공과 민간, 토목과 건축 수주 간 양극화 현상 극심
  - 공공 수주는 1~10월 동안 66.7% 증가. 이는 SOC 예산 증액(전년 대비 26% 증가)에 따라 공공 토목수주가 전년 동기비 127.3% 증가하며 호조를 보인 결과임.
  - 공공 토목수주 증가세는 예산 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하반기 접어들면서 둔화
  - 한편, 민간 수주는 전년 동기비 35.3% 감소하여 부진. 3/4분기 민간 주택수주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하반기 들어 상반기보다 감소폭이 둔화됨.
- 2010년에는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주택 부문과 비주거용 건축 수주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 수주가 크게 감소해 전년비 소폭(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건설투자, 토목투자 급증으로 회복 국면 전환

- 2009년 1/4~3/4분기 동안 국내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비 2.8% 상승. SOC 예산 증액에 따른 토목투자의 급증이 결정적 영향을 미침.
  - 2008년 국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1% 감소해 부진했으나, 2009년 들어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전환(1/4분기 +1.6% → 2/4분기 +3.7% → 3/4분기 +2.7%)
  - 토목투자가 1/4~3/4분기 동안 전년 동기비 14.7% 상승해 건설투자 증가 주도
  - 반면, 주거용 건축투자는 9.5%,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0.7% 감소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3/4분기 들어 감소세가 완화됨.

〈2009년 건설수주 증감률〉

(단위 : 전년 동기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9. 1/4	-11.2	40.0	103.3	-26.0	-64.0	86.0	-38.5	8.9	-44.4	-47.6	-38.8
2009. 2/4	-5.4	119.6	204.5	11.5	53.4	-11.0	-57.3	-58.1	-57.1	-60.0	-53.3
2009. 3/4	4.0	34.4	41.9	22.7	40.4	9.7	-11.7	-29.2	-4.3	37.3	-38.6
2009. 1~10월	-2.1	66.7	127.3	-6.0	-9.9	-2.3	-35.3	-37.6	-34.7	-39.5	-41.4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9년 부동산 경기, 경기활성화대책 영향으로 연착륙 성공

- 전국 주택매매가격 1.3%, 전세가격 3.1%가 상승하였고, 토지가격도 0.6% 상승함(전년 말 대비 2009년 11월 말 가격 기준).
  - 국내 경기의 신속한 회복에 따라 주택, 토지, 상업용 부동산 등 부동산 가격이 짧은 가격 조정 시기를 거친 이후 대부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
  -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부동산 경기 정상화에서 부동산 가격 조절로 전환되었음(LTV 및 DTI 규제 대상 확대).

### ■ 거시경제 회복으로 수요 증가 예상...공급 부진으로 수급 불안 요인 잠재

- 거시경제 여건 회복과 전세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2010년 하반기쯤 주택수요 증가 예상
  - 고용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주택 수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공급 여건이 열악하여 수급 불균형이 우려됨.
  - 특히 아직 미분양이 적체돼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위축돼 공급자들의 유동성 확보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2009년 ABCP 발행 규모가 전년보다는 증가했으나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기관들이 소극적 입장 견지).
- 경기적·제도적 여건에 의한 공급시장 기형화(공급 감소, 미분양 적체, 단기 쏠림 등)
  -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은 37만호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 2년 연속 지속됨.
  - 2009년 4/4분기부터 올 2월까지 분양 물량은 양도세 일시 감면과 DTI 규제 배제 영향으로 단기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남.
  - 그러나, 2009년 분양물량은 24만호로 2000년(2000~08년)대 평균인 28만호를 여전히 하회

〈2009년 부동산시장 지표〉

구분	가격			거래량		공급물량			미분양 주택 (호)	ABCP 발행 규모 (억원)
	주택		토지	아파트(호)	토지(필지)	인허가(호)	분양(호)	입주(호)		
	매매	전세								
물량 전년대비(%)	1.3	3.1	0.6	468,169	1,984,461	368,541	240,019	282,222	120,437	78,191
기준시점	1~11월	1~11월	1~11월	1~11월	1~10월	1~12월	1~12월		10월	1~11월
자료	국민은행		온나라포털	국토부	온나라포털	국토부	부동산114(주)		국토부	매리츠증권

주 : 아파트 거래량은 실거래 공개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 기준. 분양물량과 입주물량 중 일부는 예정치임.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TFT

## UAE 원전 건설·운영 사업 수주

- 총 400억 달러 규모, 최신 기술력으로 원전 수출 시대 개막 -

### ■ 총 400억 달러 규모, 2020년 최종 완공 예정

- 한전 컨소시엄이 이번에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은 총 40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로서, 건설 부문 200억 달러와 원자력발전소 수명 기간 60년 동안의 운전 및 유지보수 부문 200억 달러임.
  - 발전소 총용량은 560만kW(1400MW×4기)이고, 원자로형은 현재 국내에서 4호기를 건설하고 있는 가압경수로(PWR) 형식의 한국 신형 원전(APR1400)임.
  - 사업 부지는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330km 떨어진 실라(Sila) 지역임.
  - 4호기 중 첫 2호기는 2017년에 완공하고, 나머지 2호기는 2020년에 준공할 예정임.

### ■ 한국전력공사, UAE 원자력공사와 단독 계약 체결

- 한국전력공사는 컨소시엄의 주계약자로서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ENEC)와 단독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원자력산업의 전문기관은 컨소시엄 계약서에 의한 하도급자의 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함.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KHINC)는 통합 조직을 구성하여 건설 단계에서 종합 사업관리 및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발전소 운영 단계에서 발전소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함.
  - 종합설계(A/E : Architect Engineer)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가 담당함.
  -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및 터빈 발전기를 포함한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주기기 계약자로 참여
  - 기자재 설치 및 토목건축 시설물 건설은 현대건설과 삼성건설이 공동 수행
  - 핵연료 공급업체로는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가 참여
  - 한전KPS가 발전소 운영 단계에서의 유지보수 업무 담당

### ■ 낮은 단가기술력·고효율 운영 실적으로 수주에 성공

- 한전 컨소시엄은 원전 수출 경쟁 국가보다 20% 낮은 건설 단가로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건설 조직으로 구성됨.

-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건설단가는 1kW당 2,300달러인 데 반해 미국은 3,582달러, 프랑스는 2,900달러임.
- 선진국들이 원자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지 않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지속적인 원전 건설을 통해 설계 표준화와 최신 시공기술의 개발 및 접목에 성공한 결과임.
- 세계 평균치보다 14%포인트나 높은 운영효율 실적을 보유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시운전 및 운영 실적이 탁월한 핵심 경쟁력임.
- 이른바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식적·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서포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정부의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와 추진 활동이 핵심적인 성공 요인의 하나임.

#### ■ 첫 해외 원전 건설사업...사업계획의 조기 수립과 실행 필요

- UAE 원전 수주는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관리 및 건설관리 (PM/CM) 체계를 구축운영한 국내 전력 건설업계의 투자와 노력이 만들어낸 쾌거임.
  - 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외건설사업과의 호환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내 토목·건축 부문의 건설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 대책 수립이 요구됨.
- 한전 컨소시엄의 성공적인 수주는 해외건설 수출의 모범 사례로서 타 건설 상품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임.
  - 이번 원전 수주 시스템은 브라질 고속철도 민자사업 등 현재 준비하고 있는 해외건설 사업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국내 건설업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방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번 수주 사례를 기초로 더욱 심층적인 해외건설 수주 관련 분석과 연구가 필요함.
- 첫 해외 원전 건설사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실행계획서(project execution plan)를 조기에 작성, 실행해야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영환(연구위원·yhlee@cerik.re.kr)

## 2010년 경제정책-상반기까지 경기확장정책 기조 유지

-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주안점 -

### ■ 2010년 국내경제 4%대 성장 전망, 건설투자는 2.5% 내외 증가할 듯

- 2010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및 기업 설비투자 회복 등의 영향으로 회복 국면이 지속되어 전년 대비 4%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하며 2010년 국내경제 회복을 주도할 전망이다.
  - 기업의 설비투자 역시 수출 회복세, 전년도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어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되며, 자동차, 반도체 등이 설비투자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 민간소비는 노후차 교체지원제도 소멸 등 정책효과의 감소와 고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국내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 한편, 국내 건설투자는 2009년에 건설투자 회복세를 주도한 토목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경기 및 주택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점차 회복세를 보여 2009년 대비 2.5%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 단, 2010년 국내경제와 세계경제 회복에는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종료, 미국 상업용 모기지 부실 확대와 높은 실업률, 동유럽 등 과대 채무 국가들의 위기 발생 가능성, 달러캐리 트레이드와 저금리에 의한 원자재 가격 급등, 유가 상승 등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요인이 큰 상황임.

### 〈최근 국내 연구기관 및 정부가 발표한 GDP 전망치〉

(단위 : 전년 대비 증감률 %)

기관	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실업률
KDI (11.23)	상반기	6.9	5.7	2.2	25.9	12.3	16.3	2.6	3.5
	하반기	4.3	4.2	3.8	9.7	4.1	6.8	2.7	3.3
	연 간	5.5	4.9	3.1	17.1	7.9	11.3	2.7	3.4
삼성경제연구원 (11.26)	상반기	6.0	4.3	2.5	11.0	20.1	26.9	2.6	3.5
	하반기	2.9	2.0	1.8	5.7	9.9	17.7	3.2	3.4
	연 간	4.3	3.1	2.1	8.2	14.5	21.8	2.9	3.4
한국은행 (12.11)	상반기	5.9	4.3	2.2	18.9	13.5	17.3	2.7	3.6
	하반기	3.4	2.9	2.7	5.2	5.7	9.3	2.9	3.5
	연 간	4.6	3.6	2.5	11.4	9.3	13.0	2.8	3.5
정 부 (12.10)	연 간	5.0	4.0	3.0	11.0	13.0	21.0	3.0	3.5

## ■ 경기 회복 불확실성 요인 감안, 상반기까지 경기확장정책 기조 유지

- 정부는 2009년 12월 10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2010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성공적인 위기극복’, ‘성장기반 확충’의 두 가지로 정함.
- 특히, 정부는 2010년 국내경제 회복에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 당분간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지원책을 2010년 6월로 연장하는 등 대내외의 경제 불확실성 요인을 감안해 상반기까지는 경기확장정책의 방향을 유지하되 점차 중립 기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함.
  - 통화정책의 경우 재정정책 방향을 따라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연초까지는 유지하되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경기확장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의 60%를 상반기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SOC 예산 역시 2009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조기 집행 기조가 유지될 예정임.
  - 2010년 SOC 예산(안)은 2010년 4대강살리기사업 예산 6.7조원 가운데 정부 예산으로 3.5조원을 배정하고, 교통 SOC 예산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편성한 결과, 전년 대비 0.3% 증가한 24.8조원으로 편성됨.
  - 2009년 SOC 예산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70% 이상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었는데, 2010년에도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조기 집행이 예상되나 2009년의 70% 수준보다는 낮은 60%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 LTV, DTI 규제 지속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 도모

- 한편, 정부가 경제정책의 6대 분야 중 ‘서민생활 안정’ 분야와 관련해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2009년과 마찬가지로 LTV, DTI 등의 규제에 의한 금융 건전성 확보 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 더불어 주택시장 불안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보금자리주택의 연2회 분양(사전예약), ‘(가칭)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계획임.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박철한(연구위원·igata99@cerik.re.kr)

## 2010년 건설생산체계 및 입찰찰제도 대폭 변화

- 발주기관 재량권 확대, 입찰참가자 축소 및 기술 경쟁 강화 전망 -

- 2009년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2010년부터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와 입찰·계약 환경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 건설생산체계 : 겸업 등록기준 완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및 포괄보증제도 도입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시공능률과 공사 품질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외가 인정됨.
  - 업종 추가 겸업 등록시 자본금 및 기술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자격요건 중복 인정
  - 단, 동일 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
- 발주방식 다양화 차원에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제도가 도입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전문간 겸업이 허용되는 철강재설치 등 7개 업종 2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를 지자체 시범사업 후 25개 전 공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
-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당 특약에 대한 제재가 도입되고, 최저가 발주공사 중 일정 낙찰률(하위 5~10%) 이하는 원도급자가 공사 이행과 함께 하도급, 자재·장비 대금 등을 포괄하는 보증제도가 도입될 전망
- 뇌물수수 및 입찰 담합도 2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1차 위반시 뇌물은 해당금액의 20배, 담합은 독점규제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고, 3년 이내 재위반시 법인등록 말소 추진

### ■ 입·낙찰 제도 : PQ 심사기준 강화, 기술제안입찰 확대,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 등

- 최저가낙찰제 이외의 공사는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PQ 실시 여부가 자율화됨.
  - PQ 평가 기준은 대표사의 경영 상태와 시공경험 및 경력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고, 전문화율 등의 평가 항목이 도입될 전망이다.

- 지역제한입찰 대상 규모가 상향 조정되어 국가 발주 공사는 50억원 미만에서 76억원 (고시금액) 미만으로, 지자체 발주 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됨.
- 운찰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적격심사의 평가 기준이 개선되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평가가 강화되고, 시공실적의 경과 연수 적용, 과거시공평가결과 반영 확대, 시공 여유율 및 전문화율이 평가 항목으로 도입될 전망
  - 적격심사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되, 시행시기는 2년간 유보되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최저가낙찰제는 최저가 응찰자(lowest bidder)로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가 추진되고, 저가심의 대상 공종도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 건설업체간 담합, 심의위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턴키/대안 채택 요건을 강화하여 턴키/대안 발주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개선되어 300억원 미만 공사는 턴키 발주가 어려워짐.
  - 하위탈락자의 설계보상비 지급 수준이 인상되어 중견업체의 입찰 참여가 증가될 전망
  - 상설심의기구 설치, 심의위원 사전 공표, 심의결과 공개 등 새로운 턴키평가방식 도입
- 기술경쟁 강화를 위하여 공기단축, 생애주기비용 절감방안 등의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술제안입찰’이 모든 공사에 허용됨.
  - 행정안전부에서는 50억원 이상의 공사 가운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적가치낙찰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방계약법」 예규 마련을 서두르고 있음.
- 물량내역서를 발주처에서 교부하지 않고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을 산출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가 시범 도입되고, 물량내역서 교부시에도 입찰참가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
  - 발주처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물량내역서 수정 방식은 2010년에 1,0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 연대보증인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돼 턴키대안입찰은 2010년부터 공사이행보증서 의무 납부 대상이 되며, 300억원 미만공사는 2011년부터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됨.
  -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은 현재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됨.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 22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주최 '4대강살리기사업 통합사업관리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김우영 연구위원 참여</li> <li>- 4대강살리기사업 통합사업관리의 기술 지원 용역에 대한 기술 평가 참여</li> </ul>
	건설교통기술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과제 선정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 참여</li> <li>-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한 건설공사 하위 기준 정비 관련 과제 선정방향에 대한 자문 수행</li> </ul>
12. 29	건설근로자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능인력 훈련사업 평가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li> </ul>

■ 「CERIK저널」 발간

- 연구원이 발간해온 「건설저널」의 후속 월간지인 「CERIK 저널」 1월호 발간
- 「CERIK 저널」은 기존 「건설저널」에 비해 보다 연구원의 취지에 맞는 건설 전문 정보 제공 기능을 대폭 확충하였음.
  - 특히, 이슈진단 코너 및 그 달의 특집 코너를 통해 주요 건설산업 이슈에 대한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제시
  - 또한, '건설경기동향' 코너를 신설, 각종 건설 및 주택 관련 통계를 정리 분석하여 건설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 연구원 보직 인사 시행

- 2010년 1월 1일자로 연구부서 및 기획조정실 산하 2개 팀에 대한 보직 인사 시행
  - 건설정책연구실장 최민수    - 건설산업연구실장 권오현    - 건설관리연구실장 이영환
  - 교육팀장 이종한            - 출판팀장 이형우

■ 연구원 종무식 및 시무식

- 종무식 : 2009년 12월 31일(목요일)
  - 2009년도 주요 우수 연구 결과물에 대한 포상 등 실시
- 시무식 : 2010년 1월 4일(월요일)

## 庚寅年, 국가와 국민의 건설산업으로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호랑이해, 그것도 60년 만에 돌아오는 백호랑이해인 만큼 신년에 거는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 소비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으며, 2008년 대비 마이너스를 지속하던 수출증가율도 2009년 11월 들어서는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하지만 고용시장도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은 물론 한국은행에서도 새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4%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산업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건설시장을 견인하는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국책사업의 발주 증가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민간 설비 투자 증가로 민간 건축 수주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 건설수주가 극심한 침체를 보인 지난해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에 그치고, 2008년에 비해서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기 전망을 감안하면 건설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더욱이 새해 수송 및 교통 관련 SOC 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 2.8%, 본예산 대비 17.1% 감소되었고, 도로 예산도 예년 대비 적은 규모인 점에 비춰볼 때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진통을 겪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은 아쉬움을 넘어 착잡하기까지 하다. 국가의 오랜 숙원 사업인 강, 하천 정비와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토균형발전의 기회로서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보다 정치적인 논리 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적·정신적 소모성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건설산업을 보는 주변의 시각도 이와 유사하다. 건설산업이 가지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창출하는 역할 수행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건설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만 거듭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국가와 국민의 산업’임에도 말이다.

경인년 새해는 호랑이의 호방함과 물러서지 않는 진취적인 기상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얻는다(不入虎穴 不得虎子)’는 속담이 있다. 새해는 밝은 경제지표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며 추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김흥수(원장:infra@cerik.re.kr)